

보도 일시	2022. 4. 1.(금) 10:00	배포 일시	2022. 4. 1.(금) 09:00
담당 부서	개발금융국 녹색기후기획과	책임자	과장 곽소희 (044-215-8750)
		담당자	사무관 전종현 (jj2276@korea.kr) 이현지 (hjlee830@korea.kr)

제31차 녹색기후기금(GCF) 이사회 개최 결과

- GCF 사업 참여기관 확대를 위한 인증체계 개편안 승인
- 14 개도국 대상, 1.9억불 규모의 기후변화 대응사업 승인

□ 제31차 녹색기후기금(Green Climate Fund, GCF) 이사회가 우리 시각 기준 '22.3.28(월) ~ 4.1(금)간 화상으로 개최되었다.

< 녹색기후기금(Green Climate Fund) 개요 >

- ◇ **설립목적:**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 지원
- ◇ **설립년도:** '10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GCF 설립에 합의
→ '13년 한국 송도에서 사무국이 출범
- ◇ **재원: (초기재원) 103억불 (1차 자원보충) 100억불**
* 우리나라는 총 3억불 공여
- ◇ **이사회 구성:** 선진국·개도국 각각 이사 12명, 대리이사 12명 (총 48명)
- **(이사회 개최)** 1년에 3/4회 개최, 현재 공동의장은 프랑스/남아프리카공화국

□ 금번 이사회에서는 GCF 사업 참여기관의 확대를 위해 사업수행기관 인증체계 개편안을 승인한 것을 비롯하여, 1.9억불 규모의 14개 개도국 대상 기후변화 대응사업 2 건을 승인하였다.

[인증체계 개편안 승인]

- 이사회는 사업수행기관을 인증*하는 절차를 간소화하고, 혁신적이고 효과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미인증 기관에게도 사업참여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인증체계 개편안을 승인하였다.

* GCF는 전문성과 현지 이해도가 높은 기관을 인증기구로 지정하고, 이러한 인증 기구를 통해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 사업을 개발·추진 중

- 이번 결정으로, 인증기구 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이 단축되어 GCF의 효율성과 효과성이 한층 강화되고 역량 있는 우리나라 기관의 GCF 사업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.

[기후변화 대응사업 승인]

- 또한, 이번 이사회에서는 2건*의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사업을 승인하여 총 14개 개도국에 GCF 자금 1.9억불이 지원될 예정이다.

* ①콜롬비아 기후변화 적응과 지속가능한 농업생산시스템을 위한 기후스마트 계획(0.7억불), ②부르키나파소·가나·말리 등 아프리카 13개국 포괄적 녹색금융 계획 1단계(1.1억불)

- 해당 사업에는 중남미개발은행(CAF)*, 국제농업개발기금(IFAD)**, 아프리카 개발은행(AfDB)*** 등의 공동 금융지원(Co-financing)이 포함되어 총 2.9억불이 투자되는 레버리지 효과가 기대된다.

* Development Bank of Latin America

** International Fund for Agricultural Development

*** African Development Bank

- 그 결과, GCF 추진사업은 총 192건, 총 사업규모는 373억불(GCF 지원액 102억불)로 확대되어,

- 총 약 20억 톤 규모의 온실가스가 감축되고 기후변화에 취약한 개도국 내 약 6억 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.

[GCF 사업 절차 효율화 제고]

- 한국의 김경희 기획재정부 개발금융국장은 코로나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GCF 사업 확대*를 위해 노력한 사무국에 감사를 표하였다.

* 사업규모/건수 : ('17년) 21억불/43건 → ('22.3월) 102억불/192건

- 아울러, 기후변화 위기에 특히 취약한 개도국의 수요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후사업에 대한 약식승인절차*가 유용함을 강조하고,

* **Simplified Approval Process** : 규모 10백만불 이하이고 환경·사회 관련 위험이 낮으면서, 향후 규모 증대가 기대되는 사업을 대상으로 심사를 간소화하는 제도

- 향후 동 제도가 보다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이사회 차원에서 논의하자고 제안하였다.

[향후 계획]

- 한국정부는 앞으로도 세계 최대의 기후변화 대응기금으로 자리잡은 GCF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,

- 우리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과 연계를 강화하여 국내 기관 및 기업의 GCF 사업 참여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.

- 차기 GCF 이사회는 '22.5.16~19, 앤티가 바부다*(Antigua and Barbuda)에서 개최될 예정이다.

* 카리브해 동부에 위치한 영연방 섬나라로 기후변화 위기에 특히 취약한 군소도서 개발국그룹(SIDS,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)을 대표하여 GCF 이사직 수임중

참 고

31차 GCF 이사회 승인 사업 목록

사업명	인증 기구	국가	GCF 지원액 (백만불)	공동 금융지원 (백만불)
콜롬비아 기후변화 적응 및 농업 생산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기후 스마트 계획 사업	중남미 개발은행	콜롬비아	73.3	26.6
포괄적 녹색금융 계획 - 1단계	국제 농업 개발기금	부르키나파소, 차드, 코트디부아르, 지부티, 에리트레아, 에티오피아, 가나, 말리, 모리타니, 니제르, 나이지리아, 세네갈, 수단	114.4	81.0
지원요청 총액(백만불)			187.6	107.6